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	이름	박진형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Hawaii
파견대학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UHM)	파견기간	2012.08~2013.05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UHM은 호놀룰루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와이의 관광 중심지인 와이키키와는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규모는 학교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돌아볼 경우에 3~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건물이 몇 있지만 안에는 쾌적하고 요즘에는 새로운 건물도 많이 짓고 있으며, 건물들이 그 나라만의 분위기가 있어 적응하기 쉽고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 캠퍼스가 엄청 큰 것이 딱 미국식 대학교 인 것 같다. 라고 느꼈던 것 같고, 건물들도 큼직큼직하고 하와이는 날씨가 워낙 화창하고 좋은지라 맑고 쾌적하고 학교 앞 풀밭도 넓고 푸르며, 딱 보면 “와 정말 넓고 예쁘구나.” 할 정도로 분위기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밤에 돌아다닐 때 바퀴벌레가 몇몇 보인다는 것. 이것만 빼면 더욱이 좋았겠지만, 그래도 저는 더할나위없이 재밌는 캠퍼스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p> <p>또한 학교 앞에 버스정류장이 많이 있고 버스 노선도 다양하여 쇼핑이든 장을 보든 바닷가를 보러 와이키키를 가든, 어디든 갈 때 쉽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p>
2012-2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제가 2012 Fall Semester 때 들었던 과목은 총 5과목인데요, 그 중에서 2과목은 ELI 라고 English Language Institute 라는 ESL 개념의 과목으로서, 쓰기, 듣기, 읽기 세과목으로 구성되어있어 처음 학교 들어갈 때 시험을 보고 레벨테스트를 한 뒤 자기에 맞는 레벨의 ELI 수업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점수를 높게 받을 경우에 이 수업은 안 들어도 되고요.</p>

	<p>하지만 저는 레벨테스트를 잘 받던 안 받던 간에 이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며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하는데, 아날 경우에는 쉽게 친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쓰기과목 같은 경우 가끔은 Essay를 쓰는 과제가 많이 있긴 하지만 수업 구성도 쉽고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쉽고 재밌게 가르쳐 주셔서 알찬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나머지 3개의 수업들은 저의 전공이었던 관광경영을 이곳에서도 Travel Industry Management 라는 학과로 정해서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Legal Environment of Travel Industry, Management of Service Enterprises, 그리고 Introduction to tourism transportation 을 들었었습니다. 모든 과목들 다 교수님께서 친절하시고 재밌으시고 질문에 잘 대답해주시고 한 치도 지루하지 않을 만큼 정말 좋았습니다. 집중이 잘 되는 수업이었던 것은 Legal- 수업이었는데요, 이 수업은 교수님께서 직접 현실상황과 관련지어 법을 얘기 해주시는데 어찌 이해가 쏙쏙 되던지, 가끔씩 퀴즈도 내주시고 상품으로 먹을 것도 나눠주시고, 모든 수업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호텔이든 여행사든 항공사든 Guest Speaker를 모셔 오셔서 초청강의를 해 주시기도 하였었습니다.</p>
<p>2013-1학기 수업</p>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2013 Spring Semester 에는 저번학기와는 달리 4과목을 들었었는데요, 저번 학기보다 좀 더 하와이를 즐기고 싶었기에 과목을 줄여 들었었습니다. 4 과목 중 3과목은 어김없이 전공과 관련된 수업인 Food and World cultures, Human Resource Management, Hotel/Resort Facilities & Design 이었습니다. Food- 관련된 과목에서는 학기 중간에 학교 내에서 International Night 이라는 큰 행사를 열어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끼리조를 나누어 하고 싶은 국가의 문화와 생활을 조사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행사가 있었고, 또한 이 날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 전통춤을 보여주는 행사도 만들어 참 좋은 경험과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Human- 이라는 과목에서는 대부분의 강의가 교수님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수업이 이루어 졌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그룹 별로 나누어 "Oral Day" 라며 말로 하는 면접을 보고, 조별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고 초청강의를 들으며 이 날 한 면접과 프레젠테이션 점수로 기말점수를 포함 대체 했었고요, 나머지 한 과목은 하와이의 전통 춤인 "홀라(Hula)"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 홀라 수업에서는 중간, 기말 과정 없이 기말고사를 보는 전 주에 그동안 배웠던 홀라 춤을 대중들 앞에서 보여주었는데요, 이것도 나름의 큰 행사로서 큰 강당을 빌려 저희들의 퍼포먼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드렸었습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p> <p>처음 도착하고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 교환학생 담당 부서에서 Pizza party를 열어 각 국에서 온 교환학생들과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에서 소개를 해 주길, Mentor Mentee Program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로컬 학생들이 멘토가 되고 교환학생들이 멘티가 되어 한 달에 한 두 번씩 멘토멘티 Potluck을 하기도 하고 또는 게임을 만들어 같이 모여 게임을 하고 각 조의 멘토가 멘티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동아리인 International Student Association 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여러모로 많은 혜택을 받고 친구들도 많이 사귄 수 있고 하와이를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beach cleaning, oahu tour, car wash, donation, food making, club or drinking party etc. 이벤트를 열어 같이 학교행사도 하는 등 교환학생으로서 자칫 어려울 수 있는 학교생활을 재밌게 보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으로, 제가 이 두 프로그램을 모두 다 참여해 본 학생으로서 교환학생을 해 보면서 이 프로그램들이 없었으면 저는 시체였을 것이라고 장담 합니다. 저의 하와이 생활 중에 거의 80%가 이 동아리와 멘토멘티 프로그램이었을 만큼 정말 재밌고 알차고 뜻 깊었고, 이곳에서 대부분의 외국친구들을 사귀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MIX Program 이라고 uh Manoa Exchange program 의 줄임말로써 제가 교환학생을 가기 전부터 이 곳 담당자 분과 메일을 주고받으며 하와이에 도착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 체크 사항들 그리고 도착해서 해야 할 것들 등 꼼꼼하게 알려 주었습니다. 하와이 가기 전 이때에는 과연 이 친절한 담당자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정말 궁금했었는데,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때 이 분을 뵈고 정말 친근하게 생기셔서..^^ 만나서 반갑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네요. MIX Program 은 학생처 부분에 Exchange Student Service Center 라는 곳이 따로 있었는데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 친절하시고 비자 문제든, 일 문제든, 기숙사 문제든 교환학생으로서 궁금한 것들, 어려운 것들 모두 이곳에 문의를 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i>현지 기후 및 유의점</i>

	<p>날씨는 모두들 알고 계시다시피 여름인데요, 한국보다는 습도가 낮아서 그런지 한국의 여름과는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여름은 폭폭 찌고 땀도 많이 나고 하는 습도가 높은 여름인 반면, 하와이의 여름은 건조하면서 더운? 햇빛은 강해도 땀은 많이 나지 않았어요. 하와이로 출국하기 전 한국에서 짐을 쌀 때 하와이는 더운 나라이니 긴팔은 별로 가져가지 않아도 되겠다, 싫어 남방종류로 한 두 세 가지 가져갔었는데 건물 안은 에어컨이 빵빵해서 그런지 정말 춥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긴팔이 필요했고,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던 건 기모후드티를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건물 안은 정말 춥고 아무리 더운 여름 날씨라 해도 한국만큼은 덥지 않다는 걸 유념해 두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p>또한 하와이의 날씨는 정말 깨끗하고 맑고 푸르다는 말이 딱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약 10개월 동안 지내면서 한국의 날씨가 아무리 맑다고 하더라도 하와이처럼 이렇게 맑은 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맑고 포근한, 하지만 비가 오면 정말 많이 오는? 하하..</p> <p>소나기 비도 많이 오고, 제가 친구에게 들은 얘기 중 하나가, 하와이의 장마 시즌에는 40일 동안 멈추지 않고 비가 온 적이 있다. 고 들었을 만큼 장마 시즌에는 정말 비가 많이 오고, 아, 낮에는 날씨가 맑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p> <p>한국에는 4계절이 있지만 하와이에는 나뭇 여름과 겨울로 나뉘는데, 여름은 살짝은 덥지만 포근한 여름이었고, 겨울은 한국의 봄 날씨 같은? 약간 바람은 불면서 해는 쨍한, 우리에게겐 가끔씩 이것도 더운 날씨로 통하긴 하였지만 거기서 살고 있는 로컬 친구들은 춥다고 스웨터를 입고 기모후드티를 입고 학교를 등교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p>
<p>안전</p>	<p>현지 안전 상황</p> <p>저는 하와이라는 지역이 나뭇은 안전하고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리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침이나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거지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특히 와이키키 부근) 관광지이다 보니 도둑들이 은근히 많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관광지에 거지들, 도둑들이 많은지라 밤에는 이들을 내쫓기 위해 도로변에 경찰차들이 몇 대씩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원에는 밤 10시까지 머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위험하니 경찰차가 돌아다니면서 이 공원에 머물러 있는 관광객들을 내보내기도 하였고, 또한 제가 본 것을 적어보자면 Spring Semester 때 살았던 ymca쪽 바로 학교 앞에서 성폭행을 당한건지 여자는 소리를 지르고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그런 상황에 그렇게 둘이 싸우고 나서 한 대 여섯 대의 경찰차가 오기도 했습니다.</p> <p>항상 주의를 돌아보고 친구들 말로는 이곳에서는 밤에는 보통 돌아다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 이후가 되면 도로변에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와이키키 부근에 상점들도 다 문을 닫고 캄캄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p>

	<p>Security 라고 밤에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도서관으로 가는, 기숙사로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한 택시 형태의 밴을 운영하고 있어 밤에 돌아다닐 일이 생기면 이 Security에 전화를 하여 이곳의 도움을 받아 밴을 타고 움직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위험한 일들이 있을 시에 즉각 학생들의 메일로 그에 대한 내용과 조심하라는 경고를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이던 하와이던 밤에는 방심할 수 없이 위험 한 곳이긴 하지만 이렇게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위해 도움을 많이 주고 있으니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이곳에서는 항상 조심하고 밤에는 절대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o) 기타(o)</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제가 처음에 서류를 늦게 받아서 기숙사 신청을 늦게라도 하였으나, 신청 기간을 못 맞추는 바람에 기숙사에 들어가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MIX 담당자 분과 연락을 계속 취하며 다른 곳은 없을까 하고 상담을 하다가 그쪽 분께서 만약 기숙사가 되지 않아 집을 구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한 달가량 단기 민박을 잡고 직접 돌아보면서 집을 알아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음 하와이 카페로 가서 한인민박을 구해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돌아다녀보면서 2층 주택 집을 구해 같이 교환학생 온 언니와 함께 1층에 세를 내어 살게 되었습니다. 1학기 때에는 이렇게 살면서 후에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2학기 때에는 또 다른 곳에서 살아보자. 하고 생각하면서 학교 기숙사인 On campus dorm도 생각하고 Off campus dorm도 생각해 보았는데, 학교 기숙사인 곳은 제가 듣고 있는 전공의 건물과 멀기도 하였고 off campus dorm 이 도서관도 가깝고 저의 전공 건물도 가까워 이곳에서 살아보자 하고 2학기 때에는 off campus dorm 인 YMCA에서 살며 지내왔었습니다. 동아리활동, 멘토멘티 활동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 대부분 많이 기숙사 생활을 하였는데요, On campus dorm은 여러 기숙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아파트형 기숙사인 Noelani, Wainani Apartment를 선호하였으며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이 다른 기숙사와는 다르게 주방이 있어 이곳에서 친구들과 같이 직접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기숙사 생활을 보면서 저도 초대가 되어 미국드라마에서만 보던 파티도 많이 하고, 또한 직전 학기였던 주택 집에서 살 때에도 외국친구들을 불러 삼겹살 또는 스테이크 파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의 집에서도 생일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드링킹 파티 등 여러모로 많이 즐겁게 놀면서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o) 홈스테이 ()</p>

	<p>외부 식당 (o) 직접 요리 (o)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제가 가장 많이 돈을 사용 한 부분인데요, 아침은 주로 거르고 보통 학교를 다니면서 점심에 학교 식당인 Cafeteria를 이용하거나 (Cafeteria 에서도 가장 낮은 비용의 음식이 \$6이었던 것 같네요.) 학교 주변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기도 하였고, 저녁에는 약속이 없을 경우 시리얼을 타 먹고 약속이 있으면 외식을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fall semester 때에는 살았던 곳이 주택이어서 룸메이트 언니와 월마트나 일본마트인 돈키호테 또는 한국마트인 케아모쿠 슈퍼마켓에서 주로 장을 보아 집에서 음식을 해먹고 그랬었는데 spring semester로 들어와 기숙사를 옮긴 후에는 shared kitchen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1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공동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해먹기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친구들과 밖에서 더 사먹기도 하였고, 또한 spring semester 때에는 그 전 학기 보다 더 많이 여행을 다니고 돌아다니고 했던 터라 더 많이 음식을 사먹기도 했었습니다.</p> <p>Meal Plan 같은 경우는 저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주변 친구들이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이 밀 플랜은 기숙사에 살지 않는 친구가 이용하는 경우, 기숙사에 사는 친구가 이용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기숙사에 살지 않는 친구는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점심이나 간식으로 밖에 사먹지를 않았기에 밀플랜이 많이 남았다고 아까워했던 친구가 있었던 반면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은 점심과 저녁을 모두 cafeteria에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즉 기숙사에 살게 된다면 밀플랜을 추천 하지만 기숙사에 살지 않으면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통학 방법으요 가까이 살면 도보나 자전거로 다니고, 보통 버스로 통학하거나 몇몇들은 자가용을 가지고 통학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은 어플로 버스 앱이 있긴 한데 가끔씩 맞지 않을 때가 있어 되도록 도착시간 10분 전에 나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 관광지인 호놀룰루 안에서는 버스종류도 굉장히 많고, 트롤리라는 관광객들을 위한 버스도 있어서 쉽게 돌아다닐 수 있는 반면, 호놀룰루 이외의 지역으로 관광을 갈 경우에는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또는 2시간에 한 대 꼴로 있어서 한 번 버스를 놓치면 기다리는 데에 시간이 다 가서 애를 먹기 십상이었습니다.</p> <p>또한 길을 잘 몰라 헤맬 것 같을 때에는 관광을 나가기 전에 Google map으로 잘 찾아서 노트에 버스번호, 버스정류장 번호, street 이름 등을 적고 다니면서 여행을 했는데요, 훨씬 수월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쉽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p> <p>그리고 버스를 타고 다닐 때 버스패스 스티커 덕분에 돈을 일일이 준비하</p>

	<p>지 않아도 되고 학생증에 붙어있는 이 스티커만 보여드리면 바로 탈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p> <p>대부분의 학생들은 버스를 탈 때 이 스티커를 보여주고 바로 타더라고요. 학생증 대신에 체크카드로 보여드리고 깜짝 놀라서 다시 학생증을 보여드렸던 적이 생각이 나네요.</p> <p>학기초반이었던 Fall semester 때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버스로 많이 관광을 다니곤 했었는데요, 친구를 많이 사귀고 나서 Spring Semester 때에는 친구들의 자가용을 같이 타고 관광을 다니곤 하였습니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p>갈 때 : 약 210만원/ 올 때 : 약 180만원 (둘 다 '아시아나 항공'이었습니다.)</p>	
Fees	<p>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p>	
보험료	<p>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p>	<p>저는 아버지와 상의를 하여 출국을 하기 전에 삼성화재 글로벌 케어 보험을 들었는데, 비용은.. 잘 생각이 나질 않네요. ^^ 약..한 5~60만원 정도?</p>
숙소	<p>Fall Semester때 살았던 주택 집 비용은 룸메이트 언니와 반반씩 나서 한 달의 저의 비용은 \$550이었고요, Spring Semester때 Off Campus dorm 이었던 YMCA의 비용은 한 달에 \$680이었습니다.</p>	
식비	<p>음식비용도 꽤 나가는 것이 조그마한 음식이 \$6~7 이고 보통 음식비용은 \$10가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p>	
교통비	<p>교통비(버스)는 학생증에 free bus pass 스티커가 붙어 있어 항상 공짜로 탔었지만(등록금에 포함), 택시는 기본요금이 \$3부터 시작해서 Fall Semester에 주택 집에 살았었</p>	

	을 때 가끔 늦어서 택시를 타게 되면 15분에 약 \$17 정도 내기도 했었습니다.	
책값	책값이요? 어우.. 정말 비쌉니다. 조그마한 책들도 \$100가 넘으니.. 두꺼운 책들만 하면 \$200는 거뜰히 넘더라고요. 하지만 보통 학생들은 Used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중고 책으로 나름 10~50%정도 싸게 사서 보기도 한답니다. 이 Used book은 매 학기 끝날 때 마다 학생들이 사용하던 책들을 되판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것도 미국 문화 중에 하나라서 미국학생들에게는 used book을 사서 사용하는 것도 익숙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1		
기타2		
기타3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차근차근히 준비하다 보면 다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 출국 전에 제일 고민이 되었던 것이 기숙사 문제였습니다. 기숙사를 늦게 신청하여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 주변의 얘기를 듣고 직접 가서 집을 알아보라는 말을 들었었지만 처음 사는 곳에서 가서 바로 찾아 볼 수 있을까 걱정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계속 찾아보니 보통의 유학생들도 바로 기숙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원어민이 하는 민박이나 한인민박에 한 달 정도 머물면서 그 쪽의 도움을 받아 집을 알아보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을 보고 저도 한 포털 사이트 카페에 가입하여 한인 민박을 찾아 계약을 한 뒤 저는 또 이 민박주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 공항에서부터 픽업을 받고 첫날에 은행에서 통장, 카드도 만들고 장도 보기까지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아 스타트를 좋게 끊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주변 적응을 하고 또 그 민박주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 Craigslist 라는 페이지를 알게 되어 이곳을 통해 집을 알아보곤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고민이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의 핸드폰 사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핸드폰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걸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유심칩만 바꿔 끼우면 된다고 하는데 이 유심칩은 또 어디서 사야하고 통신사는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도중에 다행히도 비자를 발급받으러 갔을 때 받은 종이에 한국에서 유심칩을 제공해주고 통신사도 우리가 고르고 돈도 한국에서 다달이 통장에서 나가는 식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 이 덕분에 저는 쉽게 핸드폰 사용법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친구들은 이를 몰라 하와이에서도 한 달 가량 고민을 하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알아낸 핸드폰 통신사 가게에서 유심칩을 사고 선불제라 매 달마다 그 달에 쓸 요금제를 직접 가서 돈 내고, 불편한 게 이만 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또한 하와이라고 여름 날씨의 나라라고 반팔, 나시티만 가져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만 입는다고 생각하였던 것이 큰 오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곳에서 살면서 건물 안이 워낙 추운지라, 가지고 가지 못했던 긴팔도 사고 스웨터도 사고 남방도 사고.. 옷에 대해서도 돈을 은근히 많이 쓴 것 같네요.

또한 출국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유학생들의 준비물 같은 것을 보고 꼼꼼히 체크를 해주면서 짐을 싸는 게 뭐 물건 하나 놓고 가는 일 없이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국 할 때 비행기 안에서 작성하는 뭔가가 있는데 정확히 적지 않을 경우 미국에 도착해서 큰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 적는 란에 내가 하와이에 머물면서 거주 할 곳을 적는 칸이 있었는데 제가 그 한인민박의 정확한 주소를 몰라 (민박 주인친구가 픽업을 온다기에 정확히 주소를 외우고 있지 않았었음 T.T) 그 칸에 애매하게 적었더니 여권심사대에서 바로 잡아내더라고요, 어디서 머물 것인지 정확하게 적으라며... 저는 정확한 주소는 잘 모른다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잠시 나와 있으라며 어떤 이상한 방 안에 한 시간이 지나도록 저를 넣어 두시고는 모든 관광객들이 여권심사대를 나가고 나서야 저를 부르시고 얘기를 ..나눴던 생각이 납니다. 다행히도 그 민박 주인친구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소를 받아 적긴 했지만요. 하하, 정말 미국은 하나도 봐주는 것 없이 꼭 캐치를 해서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하더라고요. 이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주소를 모르면 나 다시 돌아가야 하나.? 하고 말이죠. 하하.. 즉. 어떤 것이든지 틀림없이 정확하게 적어놓고 외워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 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처음 하와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에는 정말 많이 들떠 있었습니다. 단과대에서 3주 어학연수로 이곳에 왔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이곳에서 내가 2학기 동안이나 공부할 것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와서 민박집주인친구의 도움을 받

아 장도 보고 집도 같이 알아봐 주고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학교생활에 있어서는 처음에 ELI 수업을 들으면서 친구들을 사귄 수가 있었고, 처음 오리엔테이션 때 소개받은 International Student Association 이라는 동아리에 들어 많은 활동들을 통해 더욱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재밌고 좋은 경험을 하면서 알찬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첫 학기에는 적응기였어서 그런지 많이 수줍고 부끄러워했지만, 두 번째 학기 때에는 적응이 돼서 친구들과 말도 많이 하고 활동도 더 많이 하고, 처음에는 ISA에만 치중되었던 내 생활이 이번에는 Travel Industry Management Student Association 이라는 TIMSA 동아리에도 들어 호텔 탐방도 가고, Hawaii Convention Center에서 연회장 서빙도 해보고, 안내원도 해보는 등 학과와 관련 지어 도움이 되는 활동들도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공부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내가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고 걱정도 많았지만, 착하고 좋은 교수님들 덕분에, 내가 교환학생이라는 것을 아시고서는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질문을 하면 쉬운 예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친절하게 다 대답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ELI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교환학생들이라 친해지기 쉬운 반면에 전공을 같이 듣는 로컬, 인터네셔널 친구들은 다가가기가 어려워 쉽게 친해질 수 있을까도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골고루 있는 그룹과제 덕분에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그 친구들 역시 착하기도 하고 다들 열심히 하는 분위기 속에서 많이 도와주면서 서로를 이끌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하와이라는 곳이 정말 천국이었던 게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은 교통편이 좋지 않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워 찼찼 때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하와이는 교통편이 좋아 매일매일 쉽게 돌아다닐 수 있고 관광객들도 많아서 맛집도 많을뿐더러 상인들이 친절하다는 점. 하와이 안에서도 돌아다닐 곳이 많다는 점. 날씨가 정말x3 맑고 깨끗하고 좋다는 점.(밤에는 별도 정말 잘 보여요. 처음으로 천문학을 배우고 싶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보지 못하는 정말 반짝반짝한 하늘이 보였어요.) 등을 포함하여 나쁜 기억 없이 좋은 기억만 남게 해주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 친구들과 많이 놀러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이웃 섬으로 여행을 가보기도 하면서 많은 추억을 쌓고 교환학생으로서 정말 값진 경험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정말 모른다는 것이 제가 살아오면서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토플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영어를 전공으로 하는 영어영문인 친구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교환학생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생각을 했을지라도 나는 못 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어떻게 기회를 얻어 토플을 공부함으로써 오랜 시간이었지만 2년이라는 시간을 공들여 이렇게 교환학생이라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이라는 더 넓은 곳에서 생활하면서 세상을 크게 바라봄으로서 이를 통해 나 자신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저의 모습을 바탕으로 제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관광경영의 꿈을 크게 펼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더욱더 크게 발전하여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순천향인이 되기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International Student Association(ISA)이라는 동아리를 들어 처음 떠나는 East Oahu Tour! 오아후 섬 동부를 돌아보며 유명한 바닷가나 관광지를 돌아보던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



학기 중에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떠난 Hiking! 뒤에 보이는 바닷가들 사이에서 바위로 이루어진 하이킹 코스였는데요, 난생 처음 암벽을 타보면서 올라가는데 살짝 힘들기는 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힘을 합쳐 올라갔기에 나름 수월하고 재미있게 다녀 올 수 있었습니다. ^^



이 사진도 동아리에서 갔던 Historical walk! 차이나타운에서부터 그 주변 미술관, 옛 도서관, 카메하메하 왕 동상 등 유명 문화 유적 관광지를 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나우마 베이! 뒤에 펼쳐진 넓은 바닷가에서 수영도 하고 선탠도 하고 스노쿨링도 하면서 예쁜 물고기들도 많이 보고~ 정말 재밌게 놀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동아리 내에서 펼쳐진 즐거운 할로윈 파티! 각종 귀엽고 무서운, 신기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사진 찰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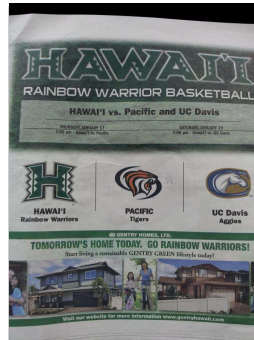
이 사진은 2013 Spring Semester 때 들었던 하와이의 전통춤인 Hula를 배우면서 마지막 학기가 끝나기 전 최종 공연을 하면서

그 중에는 한복을 입은 한 외국인 친구도 있네요! 역시 찰칵 >,< 이 파티가 끝나고 난 뒤 이 상태로 다 같이 와이키키 거리를 거닐며 할로윈 분장을 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

찍은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Hula를 같이 들었던 친구들 단체로 찍은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공연 중 찍은 사진인데 딱 가운데에 목걸이를 걸게 한 사람이 저입니다. >,<



이 사진은 동아리에서 주최했던 이벤트 중 하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연예프로그램인 '런닝맨'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게임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나와 다른 한국친구들이 아닌, 홍콩 친구들이 이 런닝맨 프로그램을 정말 재밌게 보고 있다며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제안한 게임으로, 옐로우팀, 블랙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어 대결을 하여 이름표를 잘 숨기거나 혹은 잘 때는 쪽이 이기는 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정말 치열했던 게임으로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두번째 사진에 가운데 드러누워 이름표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검은티를 입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하)



이 사진은 학교에서 열린 농구 시합 대회인데요, 우리 학교인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팀과 본토의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팀의 대결이었는데 결과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팀이 안타깝게 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에서의 농구 시합이었기에 뭔가 새롭고 신기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또 다 같이 한마음이 되어 응원을 하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경기를 보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떠난 이웃 섬 여행! 마우이라는 곳은 하와이의 섬들 중 하나로서, 오아후 섬 못지않은 수많은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즐거운 여행을 만들기 위하여 각 종 여행 가이드북을 보면서 직접 루트를 짜고 차를 렌트하여 쉽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와이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이만큼 여유롭게 제대로 여행을 한 적도 없을 만큼 정말 재미있고 깊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알찬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